

전주국제영화제 즐길 거리 '풍성'

나래코리아 콘서트 · 특별 무료 상영회 · 골목상영 · 야외상영 등 진행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전주 시민과 관객을 위해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거리와 광장 곳곳에도 한층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 시민과 영화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준비한 여러 행사를 공개했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하는 나래코리아 콘서트

4월 27일(수) 오후 7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축하하는 나래코리아 콘서트가 열린다. 전주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이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부활하는 전주돌에서 120분간 클래식과 대중 음악을 감상할 기회다. 김민지, 류정필, 무수고, 김범룡, 신정혜 등 정상의 가수와 왕주철 지휘자, 서울유니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이번 공연에 참여해, 콘서트 이후 열흘 동안 펼쳐질 영화제를 한마음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 시민 대상 특별상영회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추진을 기념하며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 무료 상영회를 준비했다. 4월 30일(토)과 5월 1일(일), 5월 5일(목) 사흘 동안 호남 내 유일한 항토극장인 전주시네마타운을 개방하여 총 6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상영작은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와 <리틀 포레스트>(2018), 이정곤 감독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하는 나래코리아 콘서트 포스터.

의 <나아웃>(2021), 홍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2021)과 이성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카이: 겨울 호수의 진실>(2016), <마리 이야기>(2001)이다. 애니메이션 두 작품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상영하기로 결정했으며, 6편 모두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은 작품으로 이전에 상영되었거나 수상한 작품들이다.

이번 특별상영회는 ▲전주시 주소지의 신분증 소지자 ▲전주 내 주소지를 둔 학교의 학생증 소지자 ▲전주 내 주소지를 둔 직장의 직장인(명함, 사원증으로 확인) 등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상영 당일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 전주 시민이 아니라도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진행하지 않고 현장 매표소에서 발권할 수 있다.

■골목상영 및 야외상영

전주국제영화제의 대표 부대행사로 자리 잡은 골목상영과 야외상영이 올해는 더 다양한 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골목상영과 야외상영은 전주시를 예술이 가득한 거리, 예술과 시민이 가까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독특한 상영 행사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영작을 상영관 밖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화와 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남부시장 하늘정원 ▲풍문문화센터 ▲도깡스페이스 캠프 ▲영화의거리(소타임 건물) ▲에코시티 세빛공원 ▲혁신도시 협송공원 등 총 6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영작 리스트 및 상영시간표는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목)부터 5월 7일(토)까지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되며, 국내 영화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온피프엔(ONTFEN)을 통해 온라인 상영을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부안'

부안청자박물관, 7월 17일까지 기획전시

부안군은 22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3개월간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전시 주제는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부안'이며, 통일부와 문화재청에서 후원하고 부안군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공동 주관·추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전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한 유일한 문화유적인 '고려 궁성 개성 만월대'에 관한 것이며, 2007년~2018년까지 12년 동안 8차례에 걸쳐 발굴한 성과와 의미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의 왕이 살았던 궁궐 만월대에서는 화려한 비색 상감청자를 비롯해 금속활자, 와전(瓦搏), 집그릇 등 다양한 유물과 궁궐 내 '회경전(會慶殿)', '경령전(景靈殿)' 등 여러 동의 건물터가 발굴됐다.

지난 12년간 발굴 조사된 고려궁궐터의 모습과 출토유물을 영상자료, 3D복원영상, 원형과 동일하게 만든 3D 복제품 등 디지털 기술로 재현해 전시함으로써 고려 궁궐 건축물의 일면과 유물을 생생하게 살펴보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기회도 제공

한다. 고려 궁성 개성 만월대는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통해 1만7,900여점의 방대한 유물이 출토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고려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청자로 궁성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청자 생산지로 가장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가 전라북도 부안이며, 서해 출포만 연안에 자리한 부안면 유천리 柳川里와 진서면 진서리鎭西里에는 12~14세기경 운영됐던 청자 가마터 7개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 사적 제69·7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와 부안 지역 청자가마터에서 발굴된 유물을 비교해 보면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용·봉황무늬가 새겨진 다양한 형태의 청자와 함께 국화·모란·구름·학과 같은 화려한 무늬가 상감으로 새겨진 뚜껑과 찻잔, 꽃모양 잔과 잔받침, 향로, 의자, 기와 등 보기 드문 최고급 청자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장수 삼봉리 고분군서 석곽묘 발견

7차 발굴조사 성과 관련 자문회의... 뱀 문양 장식 토기편 등 출토

장수군 장계면의 삼봉리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석곽묘(돌로 날방을 만든 묘)가 발견됐다.

장수군은 '삼봉리 고분군 7차 발굴조사' 성과에 관한 자문위원 회의과정에서 이 같은 결과물이 제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홍진근 국립전주박물관 관장과 관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했다.

삼봉리 고분군은 7차례에 걸친 학술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7차 조사에서는 그동안 민묘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했던 호분과 서쪽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도굴피해와 민묘 조성 등으로 상당 부분이 훼손됐음에도 하단부에 가야시대 석곽묘가 다량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석곽묘 내부에는 가야 무덤 중에서도 왕릉급 수장층 묘제에서 확인되는 꺾쇠(목관 결박을 위해 ㄷ자로 구부러진 못)를 비롯해 뱀 문양 장식 토기편, 유개장

경호(뚜껑이 있는 목이 긴 항아리), 뚜껑 등이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뱀 문양 장식 토기편은 경북 경주 계림로 30호 신라무덤에서 출토된 국보 195호 토우 장식장경호의 문양과 경북 고령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나 기대편에 시문된 모양과 유사하다고 평가됐다.

토기편 일부만 확인됐지만 뱀 문양 장식 토기편이 출토됐다는 점에서 고분의 주인공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분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유적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가야문화 발굴과 관련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번 발굴성과와 관련해 구조기술사, 건축전문가, 역사전문가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 포럼을 개최해 노출 전시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야기 순넵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녕만 씨가 출현해 대통령의 사진가를 주제로, 고향 고창에 대한 이야기와 새마을운동, 광주민주화운동,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 판문점 사진 등을 함께 감상하며, 카메라 렌즈 속에 담긴 역사 속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흑백사진으로만 구성된 그의 사진을 통해 웬지 모를 처연함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음악 즐기는는 조감녀 전통춤보존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 정명희 씨가 출연해故조감녀 명무의 흥이 깃든 조감녀류 승무와 살풀이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무용가 정명희는故조감녀 명무의 딸로 전통춤 전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김병종의 시화기행' 전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는 지난 3월 개막한 테마전시 <김병종의 시화기행>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

김 화백은 2019년부터 한 일간지에 시와 그림을 엮어 '시화기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재한 바 있으며, 전시회에는 이 연재물의 삽화 원작 32점과 자작 시(詩) 일부를 발췌해 꾸며졌다.

이번 전시를 본 관람객들은 모든 그림 옆에 짧은 시구(詩句)가 함께 있어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고, 삶과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감동을 더해 준다는 평이다. 전시실 중앙에 비치된 신문과 최근 출간된 단행본 시화기행(문학동네)을 읽으면 전시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 그림은 밤, 글은 반딧불이다"라고 말하



는 김병종 화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이면서 문학인으로도 유명하다.

김병종의 시화기행은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며, 문의는 전화(063-620-5660)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